[붙임]

환경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12.(수) (수요일 조간) 배포 2023. 04. 11.(화)

영산강유역환경청, 상반기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특별점검 실시

- 4월부터 6월까지 환경청·지자체·환경공단 합동점검 예정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은 불법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청·지자체·환경공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사전 분석을 통해 선정된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총 13개소(광주 1개소, 전남 10개소, 제주 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작년 하반기에도 총 7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에서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점검대상을 확대하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올바로시스템 내역과 실제 반입·반출 내역 일치 여부,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운반·처리 여부 등이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방치 폐기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책임자	과 장	정의근 (062-410-5760)
		담당자	담당자	이건승 (062-410-576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14.(금) (금요일 조간) 배포 2023. 4. 13.(목)

대구환경청,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특별점검 실시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불법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청·지자체·환경공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정보 분석 및 불법투기감시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된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총 16개소(대구 1개소, 경북 1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 주요 점검 사항은 올바로시스템 내역과 실제 반입.반출 내역 일치 여부,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잔재물 적정처리, 폐기물 적정 보관·운반 · 처리 여부 등이다.

○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치·불법폐기물 현장 발견 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책임자	과 장	이명순 (053-230-0770)
		담당자	주무관	노동인 (053-230-07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 일시	2023. 3. 31.(금)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3. 3. 31.(금)
담당 부서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책임자	팀 장 김대현 (063-238-8981)
		담당자	주무관 최현주 (063-238-8983)

전북환경청,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드론활용, 시멘트·레미콘 제조업 등 다량 배출사업장 25개소 -

□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乾燥期)에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날림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비산먼지”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레미콘·시멘트 등 11개 업종 36개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중 비산먼지 관리 취약업종(레미콘·시멘트·아스콘 제조업 등), 산업단지 내 규모가 큰 사업장, 과거 민원 발생사업장 등 약 25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적정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세차시설, 방진 덮개 등의 적정 가동 및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 현장 전체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출입 전에 드론을 활용하여 야적물질 방진 덮개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 및 조치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조치(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벌금이상의 고발건은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 “사업장에게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